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



8》 인터뷰 – 쇼트트랙 기대주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학사다이어리 – 수강신청 모의테스트 실시안내

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예정자
기간 : [학년별] 2015.1.28(수) 10:30~17:00 [다전공] 2015.1.29(목) 10:30~17:00
[전학년] 2015.1.30(금) 10:30~17:00
신청방법 : – 수강신청 홈페이지 (<http://sugang.khu.ac.kr>) 접속 후 신청
– 수강신청 앱 접속: 플레이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015 등록금 논의 올해도 1월 넘기나

등록금 논의 제자리걸음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양 캠퍼스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등책위)'가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서

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제2차 회의가 지난 15일 개최됐으나, 예산안에 관한 소모적 논쟁만 반복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후 논의마저 '명확한 예산안 제공'을 주장하는 학생대표와 학교 간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지난 22일 제1차 회의가 열렸지만, '3장짜리 가예산 자료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양 캠퍼스 등책위에서 학생대표들은 '가예산 자료'가 아닌 '본예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등책위에서도 대학본부 측이 예산자료를 늦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학교 측이 반복되는 자료요청에도 답이 없었다"며 "등책위 직전에 제공한 예산자료도 매우 부실해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캠 등책위 학생대표들 역시 입장표명문에서 '학교측의 늦은 자료 전달과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어려운 입장도 표명할 수 없었다'며 '더불어 같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캠에 비해 훨씬 늦은 시기에 제공받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현실론'으로 반박했다.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캠 제2차 등책 위에서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학교

측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하게 예산안을 편성한다"며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예산안에 대한 관련 근거가 정확하다는 것만 믿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오는 30일 신·편입생 등록금 가고지서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2014년에는 학부 등록금액의 뒤늦은 확정에 따라 1학기 신·편입생에 대한 학교측의 차액 환불이 이뤄졌다. 대학본부는 논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등록금 가고지 시일이 되자 인상안을 전제로 한 가고지서를 발행했다.

이후 인상안에 반발한 학생회와 뒤늦은 합의를 통해 등록금 동결안을 내놓았다.

올해 대학본부와 학생회 측은 이같은 '환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울캠의 경우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학교 등록금 책정은 '양 캠퍼스 학부·대학원 등책위 논의·조율 - 등심위 심의·권고 → 양 캠퍼스 등책위 최종결정 → 등심위 최종 확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긴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만 발생해도 전체적인 등록금 확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결국 올해의 논의는 다음 서울캠 등책위 제3차 회의로 넘어갔다. 대학본부 측에서 1월 내 예년 수준의 예산안 자료를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3차 회의는 내달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 측은 "이달 마지막 주 내로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등록금에 대해 빠르게 논의하는 학생회 측의 입장에 대해 "일



등록금 논의 순서

- 양 캠퍼스 학부·대학원 등책위 논의·조율
- ▼
- 등심위 심의·권고
- ▼
- 양 캠퍼스 등책위 최종결정
- ▼
- 등심위 최종 확정

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제캠 등책위 제2차 회의 역시 날짜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개최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약학대학

로 발송된 바 있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30일 있을 학부 등록금 가고지안 또한 동결금액으로 발송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와 같은 '일방적 인상문자'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maker "관객과 선수 모두에게 에너지 주고 싶어"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일찍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된 e스포츠 열풍이 현재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LOL)'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롤 챔스)'는 현재 우리나라 e스포츠 프로리그 중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회의 분위기 메이커인 '제6대 버프걸'로 우리 학교 조수경(생물학 2013) 양이 선정됐다. 첫 번째 이공계 출신 '버프 걸'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은 조양을 지난 19일 만났다.

'버프걸'은 스프링, 섬머, 원터 총 3시즌에 걸쳐 진행되는 '롤 챔스' 경기장에서 장내 안내와 각종 이벤트 진행을 담당한다. 조수경 양은 이 '버프걸'을 올 스프링 시즌동안 맡게됐다. '롤 챔스' 팬들과 관계자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그는 바쁘게 경기장을 누빈다. 하지만 '롤 챔스'를 매우 좋아하는 그에게 바쁜 활동은 오히려 즐거움이다. 그는 "롤 챔스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대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남학생 비율이 높은 생물학과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룰을 접하게 됐다는 그는 "공강 시간마다 '소환사의 협곡'을 찾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지만 룰이 쉽지 않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프로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롤 챔스'를 챙겨 봤다. 덕분에 한때 "소나"로 궁이나 잘 써라"며 친구들에게 구박받기도 했던 그는 현재 실버 티어다. "시간이 부족해서, 랭크 게임을 많이 못했다. 골드 티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귀띔해줬다.

자신이 좋아해서 시작한 '버프 걸' 활동이지만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특히 그는 '버프걸'로서 중립

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구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좋아하는 구단은 있지만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대신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터뷰 도중 좋아하는 구단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엔 한껏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선 "이상형"과 닮았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국제캠퍼스 를대회 부러웠다. 서울캠퍼스에서도 개최하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는 경기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에 매 경기 현장스케치를 게시함으로써 팬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고안하는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조 양은 "선수, 팬, 관계자 모두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고 싶다"며 "경기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e스포츠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길 바랐다. "지난해 국제캠퍼스에서 를 대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서울캠퍼스에서도 이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e스포츠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인터뷰 내내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조 양은 "좋아하는 선수들이 중국 리그로 나가는 것을 봤다. 국내 선수들이 최고 기량 가졌음에도 결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팬들의 관심을 경기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많은 사람들의 광대한 인간서사, 《토지》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⑭

김연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누가 나에게 〈토지〉가 어떤 책이
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겁나……”

〈토지〉는 겁나 많은 사람들이 나
와서, 겁나 많이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죽고…… 그 와중에 또
겁나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슬
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이야기
다. 만약 질문한 이가 내게 장난하

냐고 눈을 흘기면, 정색을 하고 다시 말할 터이다. 경남 하동 평사리의 지주집 최참판댁이 몰락하고 나서, 무남독녀인 서희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다시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라고. 그러나 분명 나는 금세 돌아서 이렇게 중얼거릴 거다. 그건 줄거리가 아니야, 이야기는 '겁나' 많아.

작가 박경리는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원고지 4만 장 분량의 〈토지〉(총 20권)를 써내려갔다. 26년의 기나긴, 그야말로 대장정이었다. 작가 스스로 말하기를, 목숨이 있는 이상 자신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수술 후, 가슴에 봉대를 감은 채 소설을 쓰면서 나는 지금 암마에 사로잡힌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건

무엇일까. 한 인간의 삶에서... 소설이든 뭐든 좋다. 소설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일도 좋고, 놀 거리도 좋고, 뭐든 좋은데 난 이걸 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어쩔 수 없음은 무엇일까. 게다가 26년이라니, 도대체 삶을 송두리째 걸만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찾아본 적은 있었던가.

〈토지〉를 처음 읽는 독자는 아마도 '서희'에게 제일 먼저 눈길을 빼길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이슈 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고

최경환 F학점 대자보 붙인

최휘업(정치외교학 2012) 군 ▶7면



시선

사설

대학구조개혁평가, 우리의 민낯 드러내야 할 때

우리학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돼 온 바가 아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경희의 현실은 모든 학내문제를 대학본부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일까. 과연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이익만을 대학본부에 떠넘기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민낯’을 가지고 있다. 가령, 교수는 적게 가르치고 적게 연구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량지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학교의 전임교원강의당비율은 전국평균인 58.9%에 크게 못 미치는 46.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논문 무실적 교원의 수는 전체 교원 수의 30%에 이르고 있다.

직원 사회는 점차 방대해져가고 있다. 대학주보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우리 대학의 행정 거버넌스는 타대 대비 비대한 수준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학교 전체 직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 지적돼온 학생들의 학점인플레이션 문제는 성적분포의 적절성 논란을 낳으며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취업률 현황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구성원 집단도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공동의 빠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교수사회는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연구실적평가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직원사회는 ‘거버넌스 개편’이나 ‘행정효율화’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에 당면한 학생들은 이 문제의 해결시점을 ‘나 졸업한 이후’로 꾸준히, 오랜 세월동안 미뤄왔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민낯을 공론화하기 꺼리는 사이에, 우리는 위기 앞에 직면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정구조는 재정수입 다각화 노력이 좌초되면서 순식간에 재정위기를 불러왔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방침 앞에서 A등급을 못 받아 강제로 정원이 감축될까 우려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물론,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대로만 모든 것을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학교가 우리사회의 일부인 이상, 거시적으로 돌아가는 사회흐름, 즉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조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추세에는 발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지표란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석상대의 꼼수가 아닌 현실개선이라는 정수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밀봉되어 있다는 데 있다.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의 파악과 문제점의 도출 및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세부 문제점들은 커녕 우리의 현상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는 ‘증세 없는 복지’만큼이나 허망한 구호다. 이제,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의 민낯을 공론의 턱자 위에 올린 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의학과 전속 교수 ‘당뇨병’ 복지부 연구과제 선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1.19 ~ 1.2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우정원 추가 입사 가능할까요?’(2015.1.22)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글쓴이는 자취보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은데 학점은 3.57이라며, 우정원 추가 합격이 가능할지에 대한 글을 남겼다. 댓글로 “학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리점수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합격하기 힘들겠지만 추가모집은 변수가 많다면 합격하기 기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주의 주제 - 학생회 장학금 대리수령 논란

‘밝은사회’ 위한 기초부터 바로 잡아야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지난 9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총학생회(총학)의 장학금 대리수령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단연 많은 ‘좋아요’ 수를 받으며 익명의 후속 제보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 신문으로 제보를 해왔다. 기자가 학생지원처와 총학을 취재한 결과 장학금의 현금 대리 수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져왔던 관행이었다.

취재를 시작하고 기자는 본부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의심의 여지없이 잘못된 관행이며, 장학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이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들며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잘못된 방법과 현금 수령 등의 특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진정한 대표자의 자세가 아니다. 장학금을 바른 곳에 사용했다 말한들 편법을 이용해 수령한 금액이며,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

아 불신만 생길뿐이다. 총학은 대표자로서 학생들에게 불신을 준 것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총학 임원들만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총학 임원들에 대한 시선은 그동안 내려져오던 ‘관행’에 돌릴 필요가 있다. 취재 도중 그릇된 장학금 수령 방법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말해, 다들 알고 있던 꽤나 오래된 얘기란 것이다. 문제인식이 있었음에도 개선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장학금을 학생자치비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장학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공론화 된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총학과 본부 측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사회는 총학 등과 같은 학생단체 운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불신 문제는 학생사회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학과 자치기구 등도 더욱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보자의 경우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지적하는 등 속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자치기구 임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학본부와 총학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제도의 문제를 잘 파악해 논의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바른 장학제도가 마련돼 학생들의 불신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이중잣대’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이화여대는 그 직후에 ‘동결’로 선회했다. 이후 연세대도 인하 카드를 끼내 들었다. 등록금 비싼 것으로 손에 꼽히는 대학들의 태도 변화의 배경은 여럿이다. 그중에서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선 2.4%를 제시했지만 뒤에서는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인만큼 자체하라’는 ‘자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을 감안할 때, 사실 등록금 인상을 알아서 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자조도 들린다. 등록금 2.4% 올렸다가, 정원 감축 철회를 맞으면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과 연동되는 등록금 문제에서 대학들의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속도보다는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 방향이 걱정이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알선하자는 이야기는 천박할 뿐이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다’라고 호명하는 셈이다.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런 우려를 실제로 바꾼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수간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알선하자는 이야기는 천박할 뿐이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다’라고 호명하는 셈이다. 나아가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교원임용자수와 사범대학 졸업자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공무원 선호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이 사업에 3년간 2,500억 원씩 총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보다 서너 배나 많은 돈이 걸려있는 이 사업을 외면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고, 적립금을 쌓아온 대학일수록 최근의 상황에서 유리한 이 아이러니가 담담하다.

당장 대학특성화사업에서의 가산점을 위해 4% 정원감축을 제시했던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서는 또 무엇을 포기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지 하나의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계속될수록 학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부기조에 따라 채찍(정원감축)과 당근(예산지원)에 휘둘리는 취업사관학교만 남는다. 이런 걱정에 교육부가 믿어달라며 진정성을 호소하는 상황에 할 말이 많지 않다. 교육공공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일부 비리재단 인사의 복귀문제에 대해 몇 달째 지키고 있는 침묵부터 깨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자)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조교 장학 8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교무처 “전체 장학금 액수에는 변화없다”

조교장학 축소 논란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조교장학금이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서별로 달랐던 조교근무 기준이 통일된다.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교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 대학원의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이 낮고, 조교인원이 불필요할 만큼 많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6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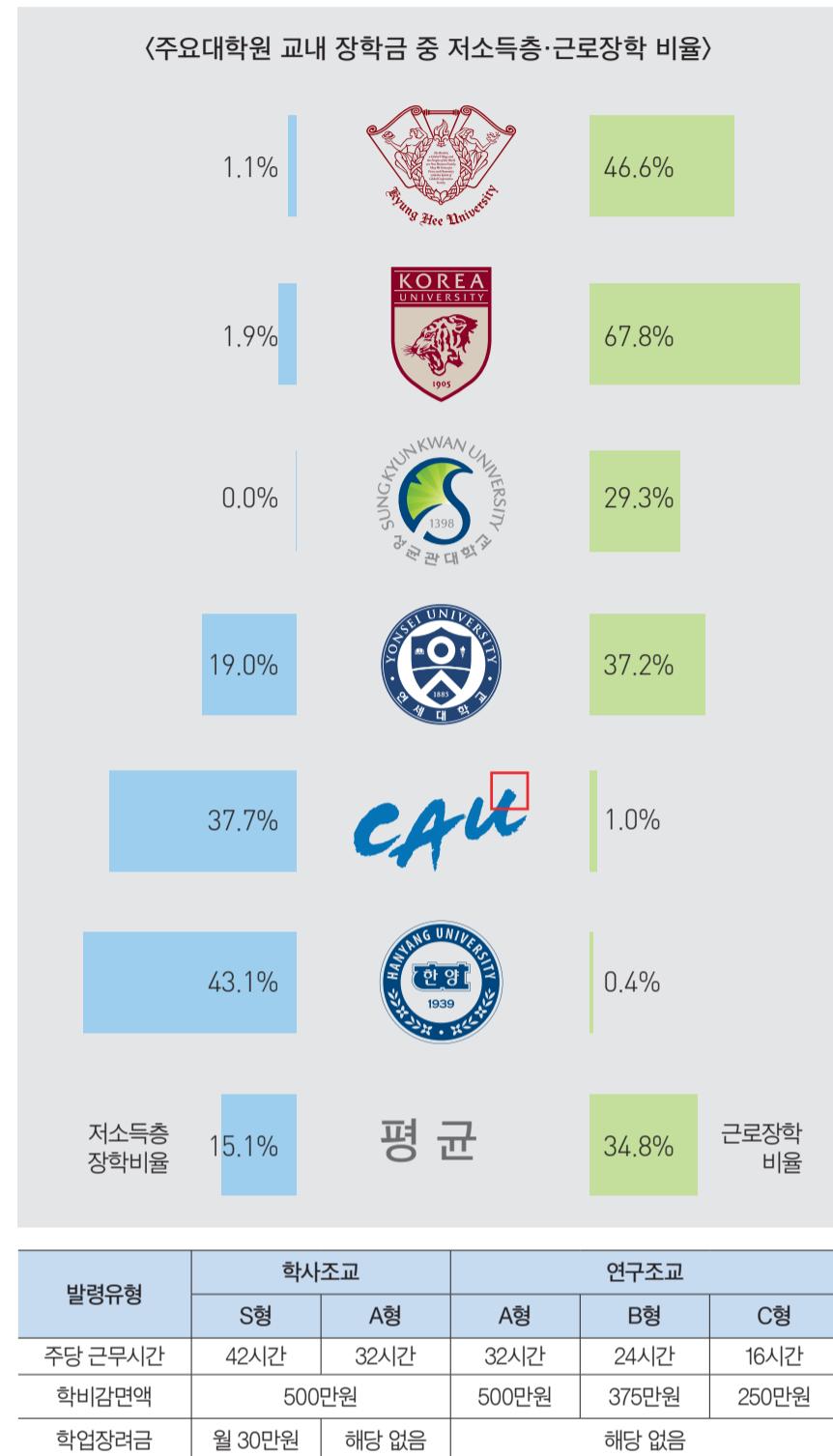
실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장학금 수혜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 8,660만 원이다. 이는 일반대학원 전체 교내 장학금 총액 162억 3935만 원 중 약 1.2% 규모에 불과하다. 일반대학원 기준으로, 타 대학과 비교해도 한양대 일반대학원(43.1%)·중앙대 일반대학원(3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교무처는 조교인건비로 배정되는 예산을 줄이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장학 비율 1.2%

주요대학 평균 15.1%비해 낮아

조교인건비는 2014학년도 2학기 대비 90% 수준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국제캠퍼스(국제캠)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국제캠의 경우 현재 축소되는 조교인원과 예산을 반영해 각 행정부서와 단과대학에 전달했다. 다만 서울캠의 경우 아직 부서·대학별 조교규모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부서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다르던 조교 근무기준과 유형도 통일된다. 앞으로 조교는 발령부서와 업무성격에 따라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조교와 교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조교로 구분된다. 또한 근무시간에 따라 학사조교는 S형과 A형으로, 연구조교는 A·B·C형으로 나뉜다. S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학기당 500만원 한도의 학비감면과 부서 자체예산에서 월 3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받는다. 반면 A·B·C형



은 각각 주32·24·16시간을 근무하고, 각각 500·375·250만원을 학비에서 감면받는다. A·B·C형은 S형과 달리, 별도의 학업장려금은 없다.

또한 부서나 대학별 특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유형 외로 조교를 발령할 수 있다는

부칙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 교무과 유지인 직원은 “행정부서나 단과대학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각 단과대학이나 부서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긴 시간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인 대학원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전체 교내 장학 중 조교장학이 46.6%를 차지하는 만큼 조교장학금 축소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무처는 “대학원 전체 장학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가계곤란장학과 조교장학 지급비율에 변경된 것”이라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장학금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교장학 비율 46.6% 차지
대학원 총학 “공식 논의 없었다”**

이런 교무처의 주장과 달리, 양 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대학원 총학)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캠 대학원 총학은 “가계곤란장학의 확대를 통해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교장학에 비해 가계곤란장학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며 “균형 잡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이 기준 조교장학을 기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제캠 대학원 총학은 “가계곤란장학의 확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는 전체 장학금 증액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하는 수단인 조교장학인 만큼, 이를 축소한다면 많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양 캠퍼스 대학원 총학 측과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국제캠 대학원 총학은 “교무처와 개편안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은 전무했다”며 “실제 조교활동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도 “어떠한 논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 넘긴 등록금 인상분 환불, 올해 초 마무리

지난해 등록금 납부 차액 환불 정리

장미영 기자 rose626@khu.ac.kr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등록금 납부 차액(3.7% 가지고 인상분)에 대한 환불이 해를 넘겨 지난 9일 완료됐다. 장학금 수혜자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장학차감과 대출상환 방식을 통해 대부분 환불이 이뤄졌지만, 학자금 대출자 중 이미 학자금을 상환한 학생의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했기 때문에 지연됐다.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환불 사태가 벌어진 것은 등록금 가지고 기한 내에 등록금 책정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우리학교는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3.7% 인상된 등록금을 가지고 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금이 동결돼 신·편입생은 3.7%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1학기 중에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환급은 2학기로 넘어가게 됐다. 본부 측은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각각 나눠 9월과 11월에 환불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재무회계팀 측은 “학자금을 상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문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사지원과 측은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불에 애를 먹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계좌를 등록해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 발생한 ‘이자’ 대해서는 교육비와 연구학생경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 측은 “우리학교는 지난 몇 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각종 수익을 적립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이 월 적립금을 사용하는 구조가 됐다”며 “등록금 납부 차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자는 기타교육비나 연구학생경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센터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신문방송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학내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학내 현장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뉴스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신청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필자분은 언제라도 미디어센터에서 연재기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094 http://media.khu.ac.kr/
031-201-3231

보도

‘장학금 대리수령’ 논란 불거져 총학, “장학금 지급 투명화 노력하겠다”

총학생회 장학금 대리 수령 논란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학생회 임원들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하고, 일부에서 장학금 다시 학생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9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계정에 지난 학기 총학생회(총학) 소속 임원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제보자는 ‘밝은사회장학’이 개인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휴학’과 ‘졸업유예(8학기 초과 재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임원들이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대리 수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했다”며 “관행처럼 이어져왔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제도를 개선하고자 고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학은 ‘밝은사회장학’이다. ‘밝은사회장학’은 공적이 뚜렷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학생지원과, “현실과 제도의 괴리 탓”

활동지원금 현실수준 상향까지 논의

이는 주로 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이다. 다른 장학과 달리 고지서 감면이 아니라 장학금이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된다. 학생지원과 최창용 직원은 “선출직인 총학회장이나 부회장과는 달리, 집행부원은 학기 중에 정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지서 감면방식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밝은사회장학’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금을 현실수준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치기구에 지급되는 장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령조건은 ‘직전 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휴학생 금지’, ‘졸업유예자(8학기 초과 재학) 금지’, ‘등필복학자(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금지’ 등으로 다른 장학과 동일하다. 학생회 임원이 ‘휴학생’이나 ‘초과학기 재학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대리수령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직원은 “예전부터 졸업유예나 휴학상태로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아 장학금 수령 조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만들어낸 관행이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적인

| 시설 | 접지저항측정결과 | 대책 |
|----------|----------|-----------------------|
| 청운관 | 1.3Ω | 양호 |
| 호텔관광대학 | 426Ω | 접지보강 |
| 국제교육원 | 85.1Ω |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
| 생활과학대학 | 1.6Ω | 양호 |
| 중앙도서관 | 178.9Ω | 피뢰침 불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
| 본관 | 2.9Ω | 양호 |
| 평화의전당 | 2,44Ω | 양호 |
| 교수회관 | 318Ω | 피뢰침 불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
| 법과대학 | 9.3Ω | 양호 |
| 제2법과대학 | 2.9Ω | 양호 |
| 한의대학 | 3.3Ω | 양호 |
| 이과대학(동관) | 54Ω | 피뢰침 불량, 접지보강 |
| 이과대학(서관) | 피뢰 접지 없음 | 피뢰침, 접지신설 |
| 경영대학 | 9,36Ω | 인하도선 연결 불량 |
| 정경대학 | 300Ω | 피뢰침 불량, 접지보강 |
| 삼의원 | 3.79Ω | 양호 |
| 학생회관 | 49.5Ω | 접지보강 |
| 세화원 | 3.9Ω | 양호 |
| 약학대학 | 0.86Ω | 양호 |
| 의학도서관 | 5.9Ω | 양호 |
| 의과대학 | 8Ω | 양호 |
| 치과대학 | 7.1Ω | 양호 |
| 미술대학 | 344Ω |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
| 미술대학(신관) | 6.5Ω | 양호 |
| 공관 | 35.1Ω | 접지보강 |
| 네오르네상스관 | 557Ω | 접지보강 |
| 세진원 | 1.9Ω | 양호 |
| 행복기술사 | 7.4Ω | 양호 |
| 무용학부 | 1.5Ω | 양호 |
| 조형물 탑 | 61.4Ω | 접지보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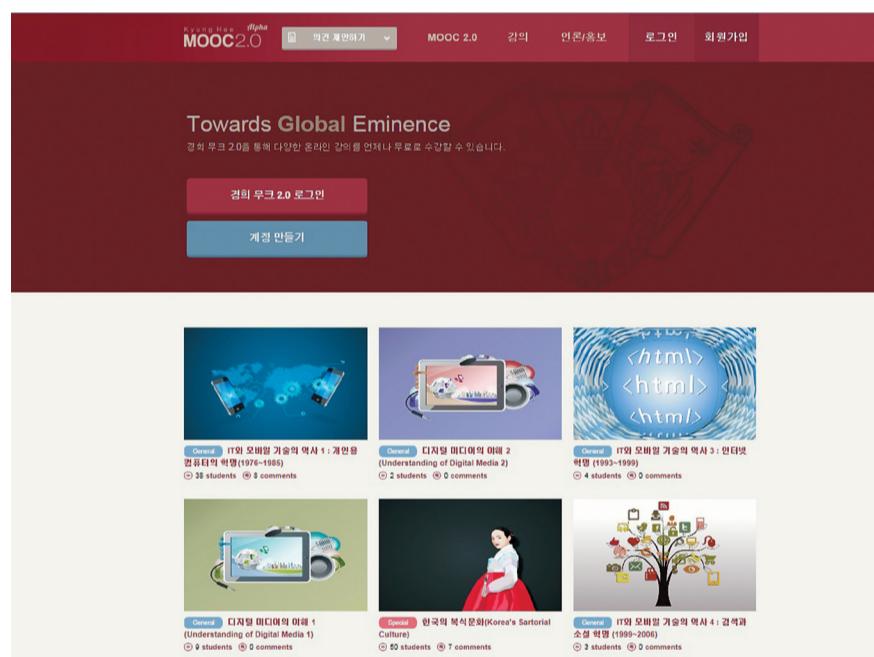
‘경희 MOOC 2.0’ 5월 오픈, 온라인 설명회와 포럼도 개최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대중강의)의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일 ‘경희 MOOC 2.0’에 실을 콘텐츠인 ‘세계 시민교육’ 과정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등지의 해외거주 한국인을 위해 한국어로 제작되며, 한국어 버전은 5월~6월, 영어 버전은 올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학교와 경희사이버대는 온라인 설명회와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지난 21일 개최돼 내달 7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왜 세계 시민교육일까’,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을 가르칠까’,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4가지 주제에서 동영상, 읽을 자료, 토론 등의 방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인포 세션(Info Session)이라고 불리는 이 설명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오는 30일에는 ‘세계시민교육 포럼’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린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시민교육(GCE)’

의 관점과 방향성’을 주제로 ‘세계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역할’, ‘세계시민교육과 정부의 역할’, ‘세계시민교육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캠 피뢰설비 43.3% ‘문제’ 관리팀, “6월부터 보수하겠다”

피뢰침·접지 안전점검 결과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서울】 ‘피뢰침·접지 안전점검’ 결과 30개 건물 중 13개 건물의 피뢰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지저항의 기준 값은 10Ω(옴)이지만, 네오르네상스관의 경우 55배가 넘는 557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6월 낙뢰로 인해 평화의 전당 상단 석조물이 파손되는 사고 이후 진행했다. 조사에서 가장 핵심에 둔 것은 접지저항이다. 피뢰침의 원리는 접지저항을 낮춰 낙뢰를 유도해 다른 건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접지저항은 10Ω(옴)이하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13개 건

물의 피뢰설비는 접지·인하도선·피뢰침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접지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드러났다. 가장 높은 네오르네상스관에 이어서 호텔관광대학이 426Ω, 미술대학이 344Ω로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리팀은 올해 6월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지저항이 10Ω 이하여도 주변 환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야지역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팀 김태우 직원은 “건물이 오래된 편이고, 학교의 지반이 수분이 없는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저항이 높게 측정되는 편이다”라며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6월부터 임야에 인접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의 경우, 상시점검을 통해 지난해 2개 건물의 피뢰침을 보수한 바 있다.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으로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들을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들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개의 해외 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n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피할 수 없는' 대학구조개혁, 철학과 비전부터 공유하자

대학구조개혁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후 두 차례의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말, 평가지표 및 향후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를 주시하던 대학의 움직임도 함께 바빠졌다.

대학구조개혁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조정과 고등교육의 질적향상이다. 80년대부터 대학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학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각 대학별로 특색 있고 강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조직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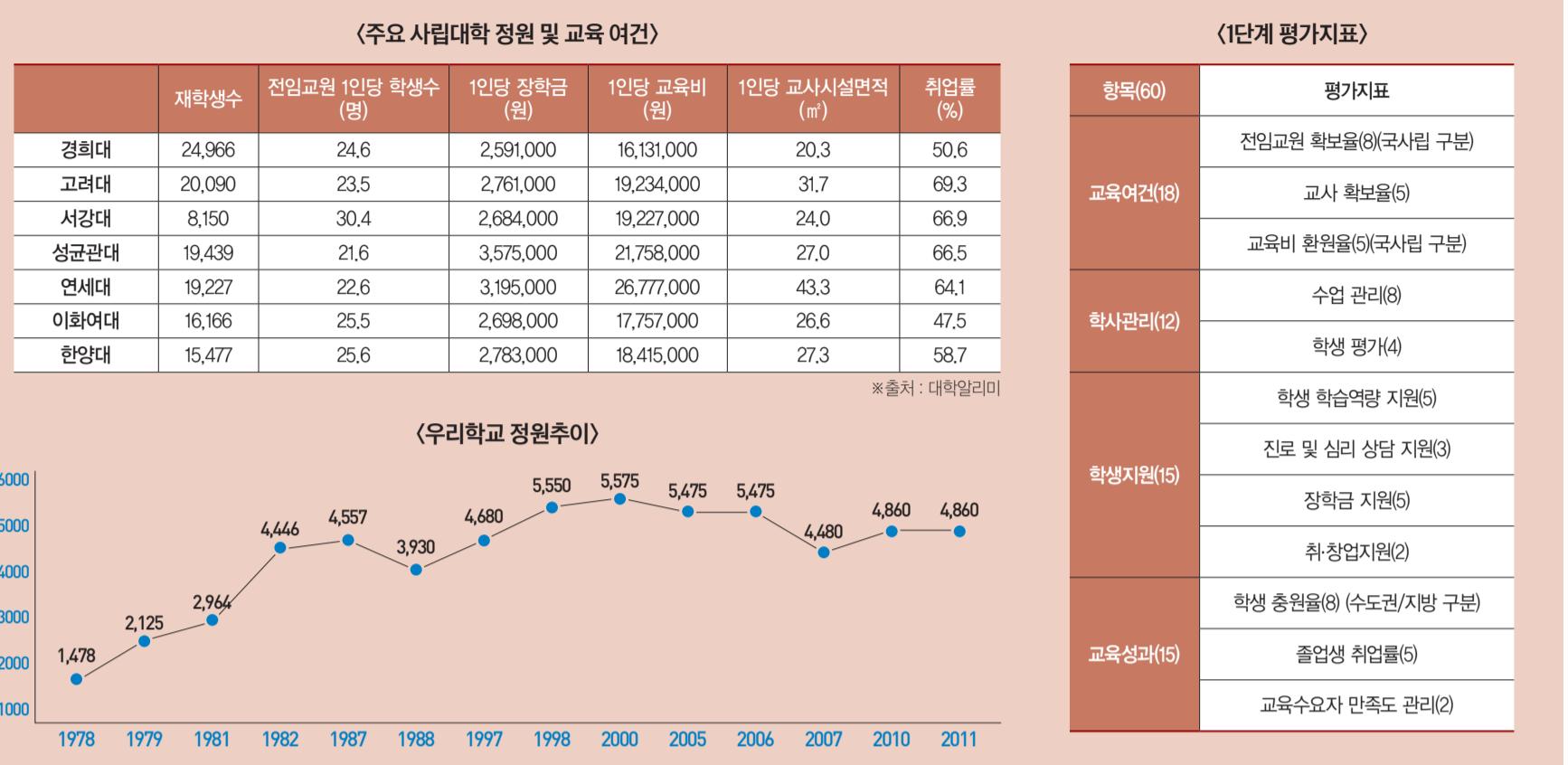
평가에 따라 A에서 E등급 부여

A등급 받은 대학은 '자율감축'

전체가 예체능 계열인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감축해야 될 정원의 비율 또한 달라진다.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B,C,D,E 등급)을 받게 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의 비율이 늘어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결정한다. 그룹 1에는 A부터 C등급 까지 받은 대학들이 속하고, 그룹 2는 D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은 대학들이 포함된다. 이후 그룹 2에 포함된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1단계 평가는 크게 4개 항목 아래 1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표, 1단계 평가지표) 12개의 평가지표 중, 6개는 정량지표, 4개는 정성지표, 나머지 2개는 정량·정성지표로 이뤄진다. 교육여건 항목에는 전입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



율로 구성되고 학사관리 항목에는 수업관리와 학생평가, 학생지원 항목에는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교육성과 항목에는 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가 포함된다.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만이 A등급을 받을수 있다. 자율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A등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시피,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라며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지표 항목에서 높게 평가 받기 위해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 23일 사립대 143개교를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율적인 감축을 실시할 수 있는 'A등급'에 속하는 대학은 13곳에 불과했다. 이는 향후 우리학교가 A등급에 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비율이다.

평가일정은 먼저 3월 말까지 1단계 자체 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량평가용 자료는 4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또한 4월 중순부터는 교육부 평가 담당자가 각 대학을 현장 방문하면서 평가 한다. 1단계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은 5월 하순부터 이뤄진다.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누는 1단계 평가결과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도한 정원 문제점으로 자작받아와 적정 정원으로의 조정 필수

실제로 과도한 정원은 우리학교의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우리학교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재적인원이 있는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34,763명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육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대학에 뒤쳐지지 않는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를 보면 오히려 상위에 속하는 영역도 적지 않다. 교사면적(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합)의 경우 50만 6,000㎡으로 성균관대의 49만 여㎡보다 넓다. 전입교원 수 역시 1,481명으로 고려대 1,459명, 성균관대 1,388명, 한양대 1,033명 보다 많다.

문제는 이런 수치를 정원에 대입하면 그 결과가 거꾸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전체 재

학생 수에 비례한 단위면적 대비 대학이 보유한 교육공간 면적을 나타내는 지표인 교사(校舍) 확보율의 경우 교사면적이 우리 학교보다 30만㎡ 이상 적은 서강대보다도 약 11% 저조한 140.2%에 불과하다.〈대학주보 제1568호(2014.05.12.)〉

결국 적정 정원으로의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원조정에 대한 우리학교의 정책은 평가지표 올리기에 집중된 인상이다.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 정원 찾기 등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학특성화사업의 가산점을 위한 정원감축 건만 하더라도 감축이 예정된 4%의 정원감축 인원 중 차등감축하겠다고 한 1.6%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철학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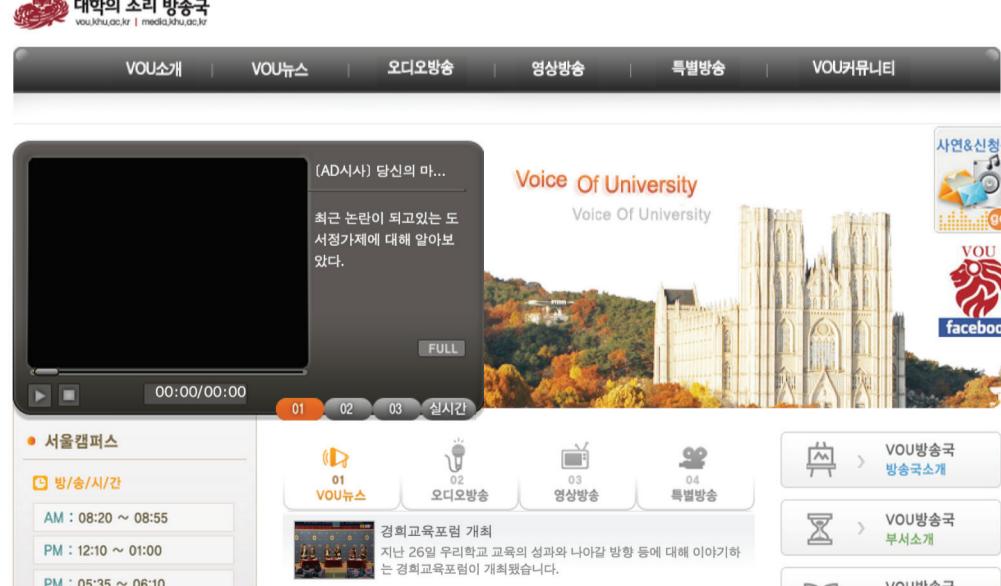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가를 앞두고, 모든 대학들에 비상에 걸렸다. 우리학교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타인이 정

한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단순히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지표만 높이기 위해 훑어 같아서 아니라 우리 대학이 처한 교육·연구·자정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우 팀장은 “대학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속내는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강점과 특색 있는 학부와 학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라며 “우리학교의 경우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철학이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에서는 이미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직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까지 우리학교의 지향점과 그에 맞는 정원조정안을 구성원과 논의해야 한다.



저희 V.O.U는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란 이름으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기본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운동에 앞장서서 경희가족 여러분에게 뉴스의 보도,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을 하며 학내 정보 전달과 정서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저희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들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보도

“학생자율권 침해할 수 있다” ‘안전’ 손 놓은 대학본부

신입생 OT 안전대책

위자현 기자 jahyun307@kn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신입생 OT)에 참가한 많은 새내기들이 목숨을 잃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안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사고대처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공문에 따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성신여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OT를 학교 측이 주최하고,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 함께 초대하여 당일 행사로 진행한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해 12월초 교무처장이 신입생 OT를 교내에서 당일행사로 진행하거나 안성캠퍼스 기숙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새터 진행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는 총학생회측이 주관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 또한 나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이므로 학생회 활동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만큼 학교 측이 주최가 돼 책임지고 운영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도 단과대학 별로 신입생 OT 기획이 한창이다. 대학본부 측은 신입생 OT 안전 계획 관여에 대해서는 학생활 동의 자치권 문제를 이유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신입생 OT는 학생들의 자치영역이기 때문에 행사에 관한 기획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본부 입장에서는 신입생 OT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한 마당에 마냥 두고 보기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행여나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은 학교 측이 질 텐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즉 대학본부 측은 안전 문제에 대해 염려가 되



2012년 외국어대학 신입생 OT

긴 하지만 신입생 OT를 주관할 경우 일어날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이리저리 저지리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 이정이(아동기족학 2012) 회장은 “신입생 OT 행사는 단과대학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총학생회 측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것 이 적절하다”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내 외 행사와 관련한 안전 수칙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운영 위원회, 학대운영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자체규정을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 역시 학교측과 마찬가지로 각 단과대학별로 기획하는 신입생 OT에 대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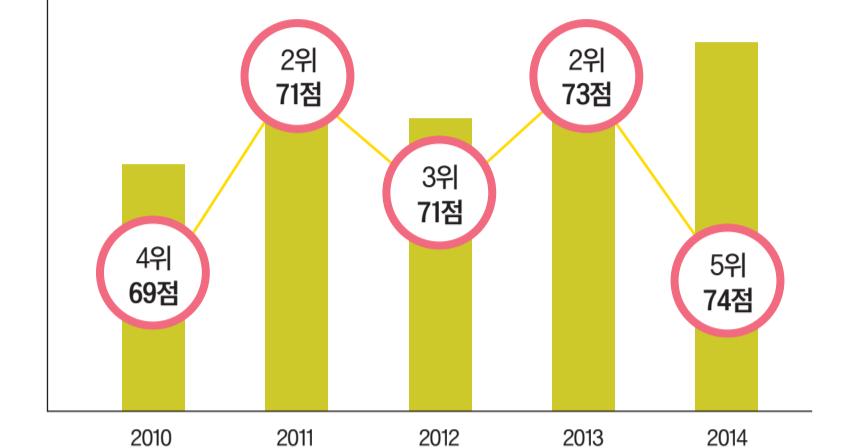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안전에 대해 각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측은 “신입생 OT 장소로부터 안전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으며 여러차례 답사를 다녀왔다. 또한 학교 측에 학과장과 행정실 직원이 2박3일간 동행할 것을 요청해 승인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관광대 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의 연식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숙소의 안전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곳으로 선택했다”며 “최종 결정 사항들을 정리하여 우편으로 각 가정에 공지한 뒤 본격적으로 신입생 OT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안전문제에 대해 일관된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가 관여하면 학생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관여하지 않자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올해만 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므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활동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안전’ 또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일방적 개입 혹은 학생회 측의 무조건적인 자치권 요구는 지양하고 양 측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NCSI, 점수는 1점 상승 했지만 순위는 5위로 5년 중 최하

〈최근 5년간 NCSI 순위 및 점수 변화〉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우리학교가 14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74점(100점 만점 기준)을 획득해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같은 조사대비 점수는 1점 올랐지만 등수는 3계단 떨어졌다.

우리학교는 7년 동안 이 조사에서 2010년 69점으로 4위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고 항상 2위와 3위를 오르내렸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정책원은 “상승 요인은 ‘고객불평률’과 ‘총성도’ 부분이 전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소폭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수가 떨어진 것은 다른 학교의 점수 상승폭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2013년 조사에서 67점으로 9위에 머물렀으나, 2014년 조사에서 10점이나 상승한 77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이화여대 또한 지난 해 조사보다 10점이 상승한 74점으로 우리학교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빅데이터 연구센터 6억 지원 받아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 중점연구소 선정

권윤지 기자 happitice2@knu.ac.kr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빅데이터 연구센터)’가 지난달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 국내 중점연구소 중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곳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6억을 지원받는다.

최근 IT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방대하고 순환 속도가 빨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집 및 분석이 어려운 정보를 뜻한다. 빅데이터의 순기능도 상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윤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까지 수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인간 중심의 빅 데이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후마니타

스 가치에 맞게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거대한 집단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자살 직전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분석해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 등을 연구한다. 때문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나 교수 중에는 공학박사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학부 강의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빅데이터 전공이 있고, 소셜네트워크과학과 석박사과정도 빅데이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구센터 박재홍 부소장은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최경환 F학점 대자보 쓴
최희업(정치외교학 2012) 특별기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할 겁니까?” tvN 드라마 〈미생〉 중의 한 대사다.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회사생활을 다룬 〈미생〉은 많은 직장인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결국 ‘계약해지’였다.

요즘의 학생들은 누구나 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방학이면 계절학기, 외국어 학원, 고시학원, 아르바이트를 한다. 취업원서를 100장 넣어도 1차 합격하는 곳은 심여 곳에 불과하다. 정작 합격하더라도 2년제 계약직, 혹은 인턴부터 시작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가 더 깁깝해지는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상승, 디플레이션, 수출경쟁력 하락 등의 대내적인 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 저성장, 일본발 엔저 등의 영향들 속에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매일 수십 번씩 기사로 쏟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정부의 신년계획 구상에서도 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수준 과연 올바른 대책인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말은 빚 갚을 능력을 뒷받침해 주지 않은 채 빚만 부풀리는 대책 없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경



위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실제 진행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기부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은 더욱 문제 많다. 정규직 보호로 논란으로 촉발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그동안 정규직이 누려왔던 임금과 고용 안전성을 해체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말한다. 정규직의 과도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그동안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려왔고, 정규직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에서는 추가고용을 하기 어려워 고용경직성이 생긴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정규직의 임금 감소분만큼 과연 실질적으로 고용투자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대신에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겠

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한다. 또한 정규직 해고 회피가 이드라인은 좋은 말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지만 그 실상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로도 충분히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삼포’ 아닌 현실적인 대책 강구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은 또 어떤가? 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던 2년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이라는 부실한 일자리 대신에, 이제는 4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이라는 부실한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계약직은 나갈 사람인데 회사에서 왜 키워줘요?’라는 〈미생〉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계약직’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둔 채 그 기간을 2년 더 늘려본 들후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한 노릇이다.

2015년은 전국 차원의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할 적이라고 평한다. 그만큼 경제 혁신에 박차를 가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실제 진행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후폭풍은 누구도 아닌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시장과 비현실적인 경제-노동 대책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먹고 살 길을 더욱 옥죄어 들 것이다.

유난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 기자회견과 오바마의 연두교서가 비교가 된다. 중산층 살리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며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당신들이 해보십시오(TRY IT).”

한국에서 월 100~200만원 씩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삼포’, ‘삶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원고 전문은 대학주보 온라인(media.knu.ac.kr/k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면에서 이어짐

“찢어 죽일 테야, 말려 죽일 테야” 라며 눈에서 레이저광선을 내뿜는 듯한 서희. 앞서 말한 것처럼 그녀의 복수극이 〈토지〉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다.

〈토지〉의 진짜 주인공은 1897년부터 1945년을 무대로 삼아 등장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같고, 또 다른 때에는 저 사람이 나같고, 이딴 사람이 다 있느냐고 진저리를 치다가도 몇 권을 더 읽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삶의 굴곡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는지 혹은 버리는지를 보여주면서 〈토지〉의 광대한 인간 서사가 펼쳐진다. 그와 함께 질문 하나가 독자에게 전해진다.

사람들은 각기 하나씩 자기 별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사람의 머리



그저 티끌같은 삶.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이들의 고투 를 보여주는 〈토지〉

론 계산조차 어려운 아득한 곳에서 저 무수한 별들이 빛을 보내고 있다 하는데 한 자 낙낙한 팔이 어찌 내 별을 잡아볼 것인가. 내 앞만 쓸고 사는 티끌 같은 삶, 티끌이 바늘귀 같은 인생의 출구를 빠져나가면 광대하고 무변한 공간.....티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꼬. 〈토지〉13권 중에서)

아득한 곳에서 빛나는 별을 잡을 수도 없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 아가지도 못하는, 그저 티끌 같은

삶.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토지〉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이들의 고투를 보여준다. 그것은 자기 삶에 무조건 만족하는 것도, 고단한 삶을 체념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토지〉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궤적을 보여주는 ‘인간백화점’이다.

참여마당

김태현
(한국어학 2012)



역사를 알아야 한류가 열린다

최근 유튜브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문에 카운터를 업그레이드하는 해프닝을 치렀다. 카운터란 동영상을 조회 수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남스타일 조회 수가 21억 회를 넘어서에 따라 기존의 카운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새로 교체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한류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비단 유튜브의 사례만이 아니다. 내가 다닌 학교에서도 이를 실감 할 수 있다. 전공이 한국어학인 만큼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빈번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수업을 함께 들은 한 일본인 친구는 우리나라 모 아이돌 그룹의 광팬이었다. 그는 수업을 듣는 주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은 팬클럽 활동을 다닌다고 했다.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방청이나 지방 콘서트 관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당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 앞을 전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팬클럽 활동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 그들의 관심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역사가 아닌 오로지 K-Pop과 아이돌 가수에만 집중돼 있다는 사실 탓이다.

한류가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것을 지키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6월 10일, 프랑스의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는 중국 국무원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목록이 게재됐다. 이 중에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회훈례, 씨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 문화유산을 구령이 담 넘어가듯 슬쩍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하는 ‘하드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문화, 사상, 아이디어 등을 그 토대로 한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흥위병들은 공자 동상을 파괴하고 사당을 불살랐다. 그랬던 중국 정부가 지난 1989년, 공자 탄신 2,540주년 행사 때 성균관의 유생들을 초청해 제사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동안 ‘보수의 원조’라고 비판하던 공자를 부활시켰다. 이후 중국은 공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공자사상을 문화 상품화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화를 구실 삼아 역사를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한 세계화란 주체성이 결여된 ‘정신의 종속’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와 정체성이 사라진 민족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자신들 것을 지킬 수 있는 단결력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역사를 빼앗기는 것은 소프트파워, 곧 국가경쟁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류가 한 순간의 경제적 문화상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이미지 변화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촉매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것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경희사랑 발전기금(24시)
(02) 961-0932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인물

위기를 딛고 도약을 준비하는 쇼트트랙 기대주

쇼트트랙 세계대회 종합우승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오로지 ‘재미’ 하나로 스케이트를 타게 된 어린 소년이 있었다. 물론 부상으로 인한 큰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간절한 하나로 위기를 이겨내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국제대회에서도 당당하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우리학교 새내기로 입학하게 되는 갓 스무 살의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를 만나 새내기로서의 목표와 입학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유치원 특성상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었던 이 군은 유독 스케이팅에 재미를 느꼈다. 글자를 떼기도 바빴던 어린 소년은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로 스케이팅에 몰두하게 됐다. 스케이팅에 빠르게 적응한 소년은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스케이팅에 능숙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이자 이 군의 스승인 제갈성렬 전 춘천시청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은 “문현이는 순발력이 좋아 쇼트트랙 계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선수”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 군은 쇼트트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지만, 그의 선수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중학생이던 시절, 이른 나이에 위기가 찾아왔다. 대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던 도중 발목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운동을

못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했다. 스케이트를 신을 수 없던 것으로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 이 군의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됐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때 쇼트트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세웠다.

“큰 부상이라 운동을 다시하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쇼트트랙을 계속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아프신 어머니를 보며 쇼트트랙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활에 몰두했다.”

이런 생각 하나로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결국 스케이트장으로 돌아왔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기회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3년 만에 되돌아간 링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른 선수에 비해 기량이 많이 뒤쳐져버린 그는 쇼트트랙으로 끌장을 보자는 생각 하나로 부단히 몸을 끌어올렸다.

부상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실힘과 노력을 빛을 발했다. 과천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이 군은 초·중·고를 함께 나온 선배 이효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함께 터키 에르주름에서 열린 ‘2014 쇼트트랙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국제대회가 처음이라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승승장구했다. 처음 마주하는 외국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상황 판단력으로 밀리지 않았다. 이문현 선수의 주종목인 1000m와 1500m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000m, 1500m



고양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이문현 선수가 훈련하고 있다

김유림 객원기자

큰 부상이라 다시 운동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쇼트트랙을 계속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아프신 어머니를 보며 쇼트트랙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함께 몰려들어 재활에 몰두했습니다

“

”

에서 이효빈 선수의 뒤를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그는 “제가 메달을 딴 것도 기쁘지만 선배이면서도 친한 형이랑 나란히 순위권에 올랐던 대회라 더 의미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문현 선수는 1500m 슈퍼파이널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효빈 선수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문현 선수는 바로 이 세계선수권대회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손꼽았다.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통했던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순간 판단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순간 판단력 덕분에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뒤에서 선수를 제쳐나가는 순간 판단력은 비교적 좋았지만 앞에서 리드하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 능력을 보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전국에 알린 그는 어느 대학으로 진학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쇼트트랙은 우리학교 외에도 단국대, 한국체대 등이 유명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우리학교를 택했다. 이 선택에는 현재 이문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이호석(스포츠지도학 2005, 現고양시청) 선수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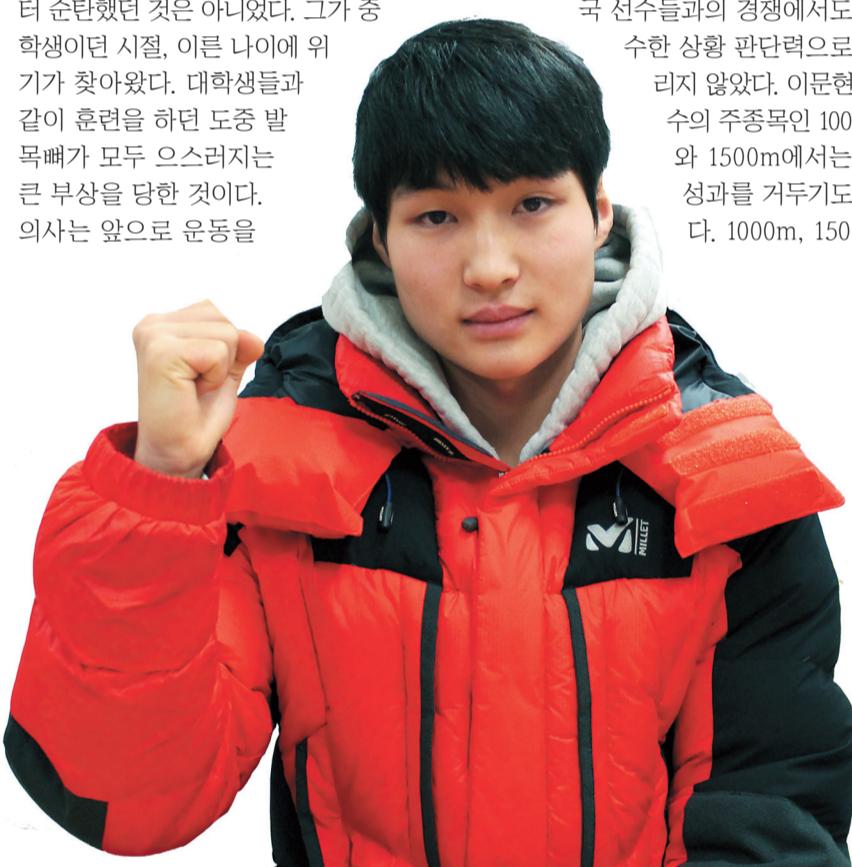
“이호석 선생님은 제 우상입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멋지게 타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멋진 품으로 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학교 출신 선배인 이호석 선수의 후배가 됐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호석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게 신기하다’는 그는 “경희대 후배가 되어 뿐만하고, 또 그래서 우리학교에 입학했을 때 감동적이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가 우리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는 새내기답게 거창한 꿈이 아니라 소박한 소망을 말한다.

“동계체육대회 때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대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과 놀라니고 싶다.”

우리학교 쇼트트랙부는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문현 선수는 ‘고양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이호석 선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다. 이문현 선수는 2015년에 두 개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고등학교 소속으로는 마지막 대회인 전국동계체육대회, 나머지는 우리학교 소속으로 처음 나가는 ‘제29회 전국 남녀 종별종합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다. 새내기인 그가 우리학교에서 멋지게 금빛 질주를 펼쳐나갈 기대해 본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